

광주시·전남도 상생발전 첫 발 떴나

시·도의회, 연구원 통합 조례안 상임위 상정키로

공청회 통해 수정·보완 내달 임시회 처리 가능성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 상임위에 상정키로 합의 따라 시·도 상생이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남)는 10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을 오는 16일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오전 의정당과 상임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통합 조례안을 오는 17일 상임위인 기획사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이달 임시회 기간에 통합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주경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우선 상임위에 상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에 상정돼 관련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통합 관련 조례에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와 상생발전 연구과제 수행 여부, 연구원 독립성을 위한 원장 선임 문제 등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보류할 계획이다.

강성휘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도 “도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일단 이달 임시회에 상정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점검 한 뒤 내달 임시회(17~29일)에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의 수정·보완을 통해 다음달 열리는 회기에는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발전연구원 통합은 조례안이 양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발전 차원에서 시·도발전연구원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이후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해 운영하다가 2007년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순천 선암사 옆에 사는 한 지인이 고로쇠물을 보내왔다.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활엽수인 고로쇠나무 줄기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받아들 달콤하고 향기로운 수액이다. 칼슘, 마그네슘 따위가 함유되어 있어 뼈와 신장에 좋다는 물이다.

겨울에 나뭇으로 휴식하던 고로쇠나무는 봄이 시작되자마자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들인다. 삼투압으로 흡수한 물을 팽압(膨脹)으로 줄기와 잎사귀로 올려 보내는데, 그 물의 영양소는 나무를 성장하게 하고, 수분은 잎사귀를 통해 대기로 흘러나간다.

그 물을 마시면서 나는 양식의 가책을 느낀다. 인간에게 수액을 빼앗긴 그 고로쇠나무는 한기증을 느낄 것이고 아마 영양 결핍으로 빨리 늙을 것이다.

어쨌든, 내가 마신 고로쇠물은 위장을 통해 몸으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다가 소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한 정신과의사는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인간의 신경증을 치료하는 음악이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섭동(攝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별들이 주변의 어떤 별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우주적인 존재인 인간의 몸은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물은 하늘에 뜬 달과 태양과, 주변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오행으로 이야기하면 남성은 불(陽)이고 여성은 물(음)인데,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성적인 결합을 할 때는 남성이 여성 속으로 빠져 들어가 함몰되는 것이고, 그 함몰로 말미암아 한 생명체가 태어난다. 여성은 자기의 물(陰)을 아가에게 먹여 키워낸다.

여성의 뿌리인 자궁은 우주적인 순환의 근원인데,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성이 입는 치마는 여성 권력의

순환하는 냇을 품고 산다는 것

그 소변은 개울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었다가 수분으로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육지로 날아와 비를 뿌리고, 그 비는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지표수로 흘러서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지구상의 모든 물은 순환하는 냇이다.

그 순환하는 냇을 흐르고 흘러 대지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비유한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원소이다. 그 순환은 우주의 운행 율동을 담았다.

지구가 순환하는 냇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어떤 별인가를 돈다.

나는 오후 세시 반이면 반드시 농로를 통해 바닷가 모래밭을 한 바퀴 돌아오는 속보 산책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땀에 축축히 젖어 있다.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데, 이때 재미있는 현상을 내 몸에서 발견하곤 한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오줌이 누고 싶어지는 것이고, 흐르는 물에 따라 오줌을 누면 온몸에 전율이 일 정도의 카타르시스를 맞는다

다는 사실이다.

상징이다. 그것은 마치 강한 자장처럼 남성들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치마 속은 천동소리와 지령음(地靈音)을 품은 신화적인 꽃잎의 신비로운 시공이다.

그 속에서는 밤하늘의 초롱초롱한 별들의 운령처럼 출렁거리는 바람과 파도 같은 유향(乳香)이 있다.

종교학자들은 인간과 식물은 정반대 성향을 가진 존재라고 했는데, 그것은 식물의 꽃(성기)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인간의 꽃은 땅을 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인들 어머니의 치마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또한 세상의 모든 남성들은 알게 모르게 여성의 유방과 새골과 도톰한 입술을,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처럼 본질적으로 응시하고, 번져오는 몸내에서 싱싱한 기(氣)를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치마는 야한 희롱의 대상이 아닌, 종교적일 만큼 성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 그 순환하는 냇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고귀한 인간으로서 살고 있음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다.

<소설가>

전남도 예산 2019년 8조 전망 2015년 재정공시

전남도의 예산이 오는 2019년이면 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남도가 10일 공개한 2015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전남도의 예산은 매년 3.7%씩 상승해 4년 뒤인 2019년에는 8조2751억1800만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세입예산은 6조671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403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의 평균액(7조2335억원)보다 5622억원이 적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24억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4조6923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이 976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49%, 재정자족도는 31.04%로 조사됐다.

전남도의 2015년 당초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영여금 포함)는 92억원 흑자였다.

일반회계는 5조4739억9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664억9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414억9600만원, 기금은 3893억1900만원이었다.

/윤현석기자chadol@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10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동서회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경북 공동발전·동서회합 노력

전남도의회·경북도의회 협약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동서회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초의실에서 경북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동서회합을 위해 공동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상생발전 공동협약은 지난해 11월 동서회합포럼과 지난달 24일 상생발전 공동협약에 따라 양 도의회 의장이 지역 간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대화합을 이루도록 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공동협약서에 따라 양 의회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상호교차 방문 등 입법경험 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상호 교류에 나선다. 또 국민대통합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양 도민의 이해 증진과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의정단 연회, 회 상호 방문, 상임위원회 상호교차 방문, 도민의 날, 독도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 상호 초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정단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으며, 전남도의회 방문 기념나무를 심은 뒤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발연-한전, 지역경제 활성화 MOU 체결

전남발전연구원과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 이 미래 전력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연구기관과 지역 연구기관 간 첫 업무 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연대'가 잇따를 전망이다.

양 기관은 10일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역의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길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관 간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

기로 약속했다.

특히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 등 현안에 대한 양질의 공동연구 추진과 전력산업 및 관련분야의 주제별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상호 노력을 다짐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현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산업의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에 양 기관이 혼연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